

# 한국형 미디어교육 모형의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Media Educational Model

이란,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Ran Lee(iran370@hanmail.net), Eunja Hyun(hyunej1@skku.edu)

### 요약

본 연구는 서울 인근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수행된 미디어 심성모형 관련 두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한국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문헌 고찰을 통해 제안하였다. 미디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모형, 즉 버킹엄의 창작 중심 교육 모형, 홉스의 실천 중심 교육 모형, 포터의 분석 중심 교육 모형, 밴후저의 세계관 중심 교육 모형을 검토해 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점들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고 재편하였다. 새로 개발된 수요자 중심 교육 모형은 '세계관과 관점,' '사용(접근),' '분석과 평가,' '성찰,' '사회적 실천' 단계로 구성된 순환 모형인데, 각 단계는 앞서 살펴본 4개의 대표적 모형이 각각 강조하고 있는 각 목표 영역의 핵심 내용들을 차용하되 한국 수요자들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했다. 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미디어 사용태도에 관한 필요는 '세계관과 관점' 영역에 반영하였고, 인쇄 매체인 도서의 미디어로서의 위상 교육은 '사용(접근)'에, 디지털 미디어의 높은 사용 빈도의 현실은 '사회적 실천' 영역에 반영하였다.

■ 중심어 : | 미디어 교육 | 모형 개발 | 문헌 고찰 | 탐색적 연구 |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

###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media educational model for the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two previous research results concerning Korean media mental model which have abstracted from elementary schoolers and parents respectively living in and around Seoul. This looked through typical media educational model being in effect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Buckingham's creation-centered model, Hobbs' action-centered model, Potter's analysis-centered model and Vanhoozer's worldview-centered model, synthesized all the strengths of each model, and finally modified and reorganized this new model to reflect demanders' needs. Newly developed demander-centered educational model is a kind of circulation model consisting of a chain of the steps: worldview and viewpoints, use(access), analysis and evaluation, reflection, and social act; Each step borrowed the essential contents of each domain of objectives and tried to reflect the specific situations for Korean demanders. The needs for media use etiquette against addiction and cyberbullying were applied to the step of 'worldview and viewpoint', the needs for the educational status of books as media to 'use(access)', and the reality of highly used digital media to 'social act.'

■ keyword : | Media Education | Model Development | Literature Review | Exploratory Study | Korean Media Educational Model |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GPF)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NRF-2015H1A2A1034321)

접수일자 :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23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22일

교신저자 : 현은자, e-mail : hyunej1@skku.edu

## I. 서론

미디어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미디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는 보다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논점이라 할 수 있다. 메이로위츠(Meyrowitz)는 오래 전 미디어를 대하는 인간의 매체 철학적 관점을 세 가지 비유어(metaphors)를 통하여 구분한 바 있다 [1][2].

우선 미디어를 ‘도구’로 인식하는 관점(media as a vessel)인데 미디어의 콘텐츠가 무엇이든 그것을 송신하는 수단 가치로만 그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디어 자체를 메시지, 즉 ‘언어’로 이해하는 관점(media as a language)이다. 미디어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의미와 문법을 가지고 있어 해독(decoding)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비판적 관점이 그 해독과정에 투영되어야만 리터러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환경’으로서의 미디어(media as environment)다. 환경으로서의 미디어는 콘텐츠 안의 변인들, 생산 변인들을 초월하는 효과와 특징을 가지며 그것을 사용하는 한 시대의 구성원들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3].

이 세 가지 관점은 미디어 교육의 관점에 그대로 투영되어 왔다. 애초에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통한(through), 혹은 미디어를 활용하는(with), 교수 보조 자료로서의 미디어 사용, 즉 도구적 사용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연결된 언어적 관점에 의해 비판받아 왔고,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의 발전으로 이를 시대적 환경으로 이해하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으로 미디어 교육을 정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4].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가 교육 목표와 내용에 반영되어 있을 때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미디어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5].

최근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Education with Media)”의 관점, 즉 도구로서의 관점 역시 중요한 미디어 교육의 일부가 되었으며[6], 아동에게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어느새 보호주의적 관

점은 약화되고, 환경의 자원으로서의 멀티미디어의 창의적 사용, 비판적 성찰, 대안적 제작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미디어 교육관으로 변모하였다[7-10].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아동 보호적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IT강국이면서도 여전히 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같은 역기능들을 학습 경쟁력의 약화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전자 미디어의 역기능을 인쇄매체(도서)의 순기능과 대비시켜 우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교적 전통 학습도구인 도서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3][11].

미디어의 개념 정의는 미디어 교육 모형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기초적이다. 보편적으로 미디어는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고 하며 효과나 정보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 혹은 그 경로를 의미한다[12].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대면 소통을 제외한 간접 의사소통의 경우에 사용되는 도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세상을 향한 투명한 창이라기보다 세상을 특정 관점으로 재현하는 경로로서 선택적 관점을 제공하게 되므로 중재의 성격을 띄게 된다 [9]. 여기서 미디어는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사진, 광고, 신문, 게임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까지 다양한 현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까지를 망라하게 되며, 미디어 텍스트란 이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된 작품, 이미지, 인쇄매체, 웹사이트 등 모든 종류의 구성물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은 언어, 시각 이미지, 오디오 등의 상징체계 분석과 평가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리터러시라는 형식으로 설명된다. 정의하자면,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뜻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skills)을 의미하며, 이를 수반하는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12]. 최근에는 미디어나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읽기)뿐 아니라 능숙한 사용 및 제작(쓰기) 등을 포함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디어 교육 발전에는 텔레비전이라는 영상 문화의 대중화가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의 유형은 실로 다양해졌고 그 의존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선사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텍스트 생산의 창조성을 제공하기도 하며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 공적도 크다. 현대의 미디어 교육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4].

본 연구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의 후반부 연구에 해당된다. 전반부 연구는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관한 학부모와 아동의 심성모형을 밝히는 것에 있었다[10][11]. 그 목적은 한국의 상황에 알맞은 미디어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의 연장선 위에서 각각 초등학교 중학년 아동과 학부모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였던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2014)”와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관한 아동의 심성모형 질적 연구(2016)”에 기초하여 서구에서 유력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모형을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즉, 미디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모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점들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의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각국에서 실행 중인 유력한 미디어 교육 모형들의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
2. 위의 유력한 미디어 교육 모형과, 학부모와 아동들의 미디어 심성모형에 입각해 볼 때, 한국 초등학교 중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모형은 무엇인가?

## II. 미디어 교육 모형 검토

### 1. 버킹엄(D. Buckingham)의 창작 중심 교육 모형

영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인 BFI 모형의 6가지 핵심 개념은 ‘미디어 제작자,’ ‘미디어 범주,’ ‘미디어 기술,’ ‘미디어 언어,’ ‘미디어 수용자,’ ‘미디어 재현’인데, 이는 영국 미디어 교육이 전통적으로 문화이론에서 비롯된 문학비평가 양성교육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13]. 버킹엄은 이 BFI 모델을 기초로 ‘미디어 제작’ 요소를 강화시킨 교육 모형을 제안하여 확산시켰다[12]. 이 모형은 ‘언어’ ‘표상/재현,’ ‘수용자,’ ‘미디어 제작’의 4가지 개념을 표준 교과과정의 필수 교육내용으로 확립하였는데 그동안 비판적 읽기(해독) 중심이었던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는 이를 제작하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창작 중심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6].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드시 읽기와 쓰기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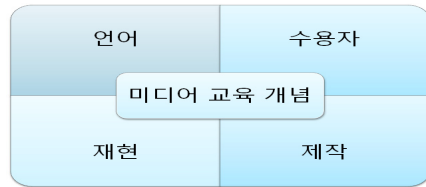


그림 1. 버킹엄의 미디어 교육 모형

표 1. 영국 표준교과과정의 미디어 교육내용[9]

개념	핵심 내용
언어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생성 분석, 의미, 관행, 코드, 장르, 선택, 조합, 테크놀로지 등
미디어재현/표상	미디어 텍스트가 대상과 사회를 표상하는 방법. 리얼리즘, 진실 말하기, 존재와 부재, 편견과 객관성, 전형화, 해석.
수용자	목표 수용자 정하기, 수용자 지칭하기, 유포 및 배급이용, 이해, 즐거움, 사회적 차이.
미디어 제작	미디어제작의 의도, 제작가, 테크놀로지, 전문제작영역, 미디어산업, 미디어 간의 연계, 유통과 보급.

버킹엄은 창작 활동은 또한 비판적 분석 활동과 통합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매체와 결과에 대한 성찰과 자기 평가의 중요성 역시 언급했다[12]. 이는 창작에의 단순한 참여가 아니

라 비판적 참여, 즐기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2].

## 2. 홉스(R. Hobbs)의 사회적 실천 중심 교육 모형

미국의 홉스는 미디어 교육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로, 학습자가 모든 유형의 미디어에 능숙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읽고 쓸 자유가 주어질 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학습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empowerment)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5]. 2010년에 개발된 이 모형은 사회참여 및 실천적 모형에 해당한다. 기존의 모형들이 ‘접근,’ ‘분석과 평가,’ ‘창작’ 단계에서 종결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성찰’과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확장시킨 모형을 제안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모형이 기존의 TV, 신문 등의 구미디어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디지털 미디어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 시사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개별 미디어 사용 능력을 타인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5]. 기존의 미디어 창작을 통한 능동적 참여자의 역할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자기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성찰하고 이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적 행동으로 옮겨 영향력을 형성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형이다[5]. 그리고 이 ‘실천’의 결과는 다시 ‘접근(access)’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순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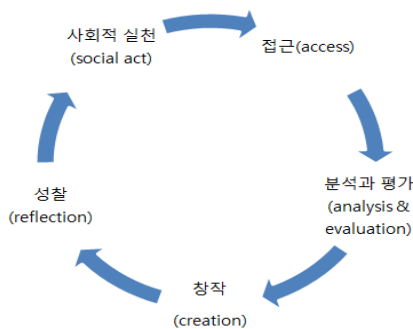


그림 2. 홉스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

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5]

단계	핵심역량의 내용
접근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고 타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능력
분석과 평가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의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작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 생성해내는 능력
성찰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 의사소통 활동, 행위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
사회적 실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가정, 소속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국가 수준에서 참여하여 활동할 능력

홉스의 모형은, 기존의 버킹엄이 창작 중심의 모형에서 성찰과 자기 평가의 단계를 간단히 부연한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이를 다시 미디어 교육 활동에 피드백하는 사회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 3. 포터(J. Potter)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모형

포터는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보호주의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텍스트의 ‘분석’과 ‘평가’ 단계에 집중해 논의를 펼쳐온 미디어 교육학자이다. 그가 홉스와 주고받은 논박 아티클들은 미디어를 접하는 아동 학습자에 대한 보호(protection)와 권한부여(empowerment)의 관점 대립을 여실히 드러내준다[14][15].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우리가 만나는 미디어 메시지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관점들’이라고 표명했다[9]. 왜냐하면 개 개인의 지식 구조로부터 관점이 세워지는데 이 관점으로부터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 구성요소는 개인적 영역(personal locus),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 그리고 기술들(skills)이다[9]. 개인적 영역이란 정신적 에너지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관점이나 능력으로 개인의 목표와 욕구들로 이루어진다. 이 개인적 영역을 잘 파악하면 자신의 미디어 해독 관점과 그 방

향성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정신적 코드를 재프로 그램화할 수 있다. 둘째, 지식구조란 기억 안에 조직된 정보 세트로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인출하는 데 일종의 지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걸러낼 때는 what보다는 how나 why가 중요하게 되므로 개인적 영역에 의한 해석(interpretation)과 반영(reflection)을 통해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수정된다. 마지막으로 기술들(skills)이란 지식 구조를 구조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며 일회적 습득으로 완료되기보다 연습을 통해 계속 발전되는데 역시 개인적 영역의 통제를 받는다[9].

그러므로 포터가 제안한 모형의 특수성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관점(viewpoint) 혹은 개인적 영역(personal locus)의 선행적 형성에 놓여져 있다. 또한 이처럼 수립된 관점이나 자기 통제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수시로 점검되고 수정된다. 그는 다양한 메시지의 능숙한 ‘사용’과 ‘분석’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술적으로(technically) 메시지를 활용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습득한 지식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9].

호주 빅토리아주의 미디어 교과과정론에도 그 11개의 내용영역 중 ‘선택, 구성, 재현’ 개념에서 ‘세상에 대한 관점경험(수용),’ ‘개인적 관점 비교하기(반영),’ ‘세계관 수립(학습활동)’ 등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1]. 이처럼 ‘관점(세계관)’은 미디어 메시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찰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모든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계속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포터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개인의 관점의 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체적 개념일 뿐 아니라 다차원적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9]. 그가 제시하는 미디어 메시지 분석의 다차원성은 4가지로 축약된다. 인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심미적 영역 그리고 도덕적 영역이다.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전인 교육적인 접근으로서 미디어 텍스트를 단순한 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창작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이며, 그 분석의 포맷은 매우 교육학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포터는 이 4가지 분석 및 평가 영역을 가지고 뉴스, 광고, 오락물,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 메시지를 분석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4가지 분석 영역으로 구성된 ‘기술과 지식’ 습득의 목표 영역에 관한 교육 모형은 흡스가 제시한 6가지 순환적 리터러시 역량 중 ‘분석과 평가’ 단계를 매우 집중적으로 다룬 모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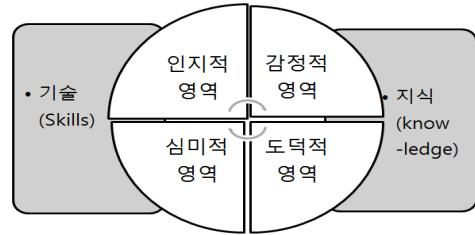


그림 3. 포터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교육 모형

표 3. 메시지 분석을 위한 기술과 지식 유형들[9]

영역	기술들(skills)	지식(knowledge)
인지적 영역	-정보의 핵심사항 분석 능력. -지식구조와 새 정보의 핵심 사항을 비교할 능력. -정보의 사실성을 평가할 능력	-많은 출처로부터 구성된 해당 정보 관련 지식.
감정적 영역	-메시지 속 인물의 감정을 분석할 능력.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거나 감정이입할 능력.	-메시지 속 인물의 위치에서의 감정을 자기 경험으로부터 확장함.
심미적 영역	-메시지 속 예술적 요소를 분석할 능력. -다른 메시지에 사용된 예술적 요소와 비교할 능력	-다양한 메시지 창작 관련 지식. -메시지의 질에 기여하는 좋고 나쁜 요소에 대한 지식.
도덕적 영역	-메시지 속 도덕적 요소, 가치를 분석할 능력 -다른 메시지의 도덕적 요소들과 비교할 능력	-고도의 도덕적 코드에 관한 지식. -메시지의 조작성과 생산 구조에 대한 비판적 지식

포터가 ‘개인적 영역(personal locus)’이나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학습자에게 선행적으로 미디어 사용의 목표를 세워 자신의 필요를 기반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찾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통제하여 미디어 자체에게 자아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예방적 의도가 강하게 배어있다. 따라서 포터의 모형은 매우 메타 인지적 성향이 강하며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목표 수정, 메시지 탐색의 유용성에 초점을 둔다.

#### 4. 밴후저(K. Vanhoozer)의 세계관 중심 분석 모형

밴후저는 문화텍스트 이면의 세계관 분석을 강조한 문화텍스트 해석학자로서 다양한 텍스트 배후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에 주력한다[16]. 그가 말하는 텍스트는 보다 포괄적이다. 인쇄물(도서, 신문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술작품,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 그리고 문화 트렌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디어는 본래 medium, 즉 전달체, 매개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뿐 아니라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밴후저는 엄격히 미디어 교육학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폭넓은 의미의 미디어 텍스트 해석학자로 논의될 수 있다.

그는 이들 매체가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나의 적합한 해석을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16]. 그가 제안한 텍스트 읽기 모델은 텍스트 해석에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기본적 해석 원칙은 그 텍스트를 저작한 저자에게 의미의 근원이 있으며 그 근원지에서 의미가 창발했음을 인정하고 저자 중심적 이해, 혹은 그 결과로서의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존중적 태도로 읽는 것을 의미하였다[20]. 그러나 이렇게 밝혀진 본래적 텍스트 의미는 독자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의심의 해석적 과정을 2차적으로 거치면서 비평된다. 따라서 그의 해석학은 2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찾기와 독자의 세계관에 근거한 비평적 의미 찾기가 있다[16][20]. 이는 텍스트 분석과 비평에 미치는 독자의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방향 감각이 있는 이해라고 믿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16].

포터 역시 미디어 메시지 분석에 미치는 일련의 ‘관점’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이해하였고, ‘개인적 영역’의 선행적 확립을 통해 미디어 사용을 계속적으로 통제해갈 것을 요청하였는데[9], 밴후저는 이 ‘관점’과 ‘개인적 영역’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세계관’으로 확장시켰다. 이는 메시지를 취사선택하는 데 비단 주도적인 목표, 자기 통제권, 정신적 에너지가 사용될 뿐 아니라 철

학, 신념,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이 그 해석과 분석에 개입되게 한다는 이해이다.

그의 분석 모형의 독특성은 먼저 학습자 자신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둘째,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능숙하게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분석에는 장르 이론, 역사 정보, 저자 정보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이 전제된다. 또한 이 의미를 토대로 그 이면의 세계관을 분석해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토대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비평한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기초하여 대안적 실천을 감행한다. 이 단계는 새로운 텍스트의 ‘창작’과 ‘성찰’, ‘사회적 실천’ 등을 모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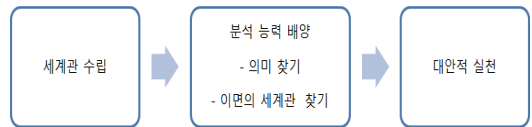


그림 4. 밴후저의 문화텍스트 분석 교육 모형

표 4. 밴후저의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내용
세계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념, 철학,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수립.</li> <li>- 자신의 문화관, 문화 해석적 관점, 읽기 목적 등을 정리.</li> <li>- 이후 분석적 틀의 역할을 함.</li> </ul>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내부의 세계 (감상과 이해)</li> <li>- 텍스트 이면의 세계 (의미 찾기)</li> <li>- 텍스트 앞의 이해와 분석 (효과와 영향력)</li> <li>- 세계관 비평 (나의 세계관에 비추어 비판과 수용)</li> </ul>
대안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있는 해석자(문해력)</li> <li>- 분별력 있는 제안과 영향력 있는 의견 창조</li> <li>- 대안적 문화텍스트 창조</li> </ul>

따라서 밴후저의 분석 모형은 포터의 분석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관점’의 의미 폭을 ‘세계관’으로 확장시켰고 이에 철학, 신념, 자기 정체성 등의 의미까지 포함된다. 둘째, ‘관점’ 수립 뿐 아니라 ‘분석과 평가’, ‘성찰과 실천’ 단계를 보다 큰 하나의 범주로 묶어 제시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 메시지의 분석 대상을 이 시대 다양한 문화텍스트로 확장시켰다.

‘세계관 수립’과 ‘성찰, 사회적 실천’의 단계들은 학습

자의 미디어 사용 관점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통제와 메시지 선별, 주제적 피드백과 사회적 영향력까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새 시대 미디어 교육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디어 중독이나 거짓 정보, 사이버 폭력 등의 해악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현대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단계임이 분명하다.

### III.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표 영역

미디어 교육과정 모형 개발은 일반 교육 모형과 같이 교육의 목표 영역과 개념을 설정하는 일부에서 시작된다 [6]. 이를 설정함에 앞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유용하다. 미디어 교육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대중 예술적 관점, 산업/기술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이 그것이다[6][18][19].

김양은이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정리, 제시한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19] 메이로위츠(Meyrowitz)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세 관점과[1] 연결한 후 본 연구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 재구성하면 [표 5]과 같다.

표 5.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 목표

패러다임	대중예술적 관점	산업/ 기술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교육 목적	보호주의/ 예방적 차원	개인의 자율규제능력	환경적응능력=미디어능력
미디어 정의	대중 예술	미디어산업	일상 환경
요구 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감상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수용, 비평 및 생산/창조적 메시지 창조
교육 목표	감상능력	해독능력	생산능력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관점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언어로서의 미디어	언어/환경/도구로서의 미디어

이와 같이 미디어 개념이 대중문화에서 산업, 그리고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목표도 감상능력에서 해독능력, 그리고 생산능력으로 옮겨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저급한 문화에 대한 식별’에서 ‘비판적 미디어 메시지 분석’으로, 그리고 ‘미디어 비평/생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접근 중 미디어 환경론적 패러다임이 메이로위츠의 세 가지 관점을[1]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흡스의 모형이 보여주듯이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의 실천은 앞의 두 패러다임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포괄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 영역은 미디어 ‘감상,’ ‘분석,’ 그리고 ‘생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의 4가지 미디어 교육 모형들을 종합하여 한국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들의 필요를 반영한 하나의 대안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다룬 ‘세계관/관점 수립’과 ‘성찰과 사회적 실천’ 단계들을 반영하여 그 개념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미디어 교육이란 자신의 관점(세계관)을 수립한 후, 인쇄물, 시청각 매체, 멀티미디어, 뉴미디어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이 관점을 투영하여 사용(접근), 분석(평가), 창작, 성찰(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상 5가지 목표 영역은 앞에서 거론하였던 네 연구자들이 강조하였던 영역을 차례로 드러내므로 그들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였다.

표 6. 수정된 미디어 교육 모형의 5가지 목표와 활동

목표 영역	관점/ 세계관	사용 (접근)	분석/ 평가	창작	성찰/ 실천
교육 목표	세계관 수립과 적용	능숙한 사용	비판적 분석	대안적 생산	의사소통 참여와 실천
매체관점	환경	도구/ 환경	언어	도구/ 언어	환경
관련 활동	세계와 자기 정체성 이해	매체 사용법 이해와 적용	관점에 따른 비평	관점에 따른 제작	관점의 수정과 참여
강조 연구가	포터, 벤후저	전 학자	포터	버킹엄	흡스, 벤후저

#### IV.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개발

##### 1. 수요자 욕구 분석: 선행 연구 중심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수립하고자 부모와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디어 심성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기초 조사의 성격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연구였다. 만8-10세 아동 부모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각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해당 아동의 집이나 커피숍에서 진행되었고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기초조사, 연상 단어 제시, 문장 완성하기, 심층 인터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동의 심성모형 연구는 만 10-11세 아동들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사는 10인의 아동이었다. 자료 수집은 연상 단어 제시하기, 문장 완성하기, 그림 그리기, 2차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다. 장소는 연구참여자 아동 중 한 아동의 집이거나 커피숍에서 진행되었고 시간은 각 20-3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이 또한 아동의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심성모형을 밝혀 이후 미디어 교육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조사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이처럼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실시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모의 심성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환경에 대하여서는 [표 7]과 같은 하위 구성요소로서 추출된 바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중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정리해 보면, 부모들은 미디어를 유능함의 표상,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적 표상, 소통과 단절의 관계적 표상, 갈등과 화해의 다층적 표상, 개인과 사회의 공동의 영역 등의 심성모형을 가지고 있었다[11]. 이 결과를 논

표 7. 미디어 환경의 구성요소[11]

구성요소	세부요소
미디어 기기	스마트폰, TV, 컴퓨터, 라디오, 동영상, 아이패드, 신문
소통성	카톡, 메시지, 워로, 대화, 대화소재, 소통, 전달, 연락
단절감	왕따, 혼자 있는 거, 외로움, 대화 부족
유능함	학습, 도구, 학교, 공부, 숙제, 유능, 전능, 효율.
공급원	정보, 편리함, 즐거움, 편안함, 여유
오락성	친구 같은 것, 기본 전환, 즐거움, 심, 오락, 재미, 흥미, 자극
역기능	독, 중독, 바보상자, 산만함, 도피, 가짜, 불신, 복잡
양면성	필요악

고 부모-사회 체계의 협력적 교육, 부모의 미디어 인식 및 역량 강화,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순기능 적극 활용 등의 교육적 제안을 하였다.

초등 중학년(4학년) 아동의 미디어 심성모형 연구 역시 부모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3].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미디어 의미 구성요소는 “미디어 기기, 소통성(소외감), 유능함(공급원), 오락성, 역기능, 양면성” 등이었다.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는 “기능성/유능함, 오락성, 책(종이)과의 갈등/공유, 해악/양면성”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의 인터뷰는 “종이책과 전자 미디어와의 갈등, 소통 중심성, 중독에의 두려움, 사용자 자격” 등의 의미요소가 범주화되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소통에 대한 관찰과 인식 강화, 중독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습 미디어와 책 미디어의 적극적 개발과 균형 있는 활용, 건강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사고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3].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와 아동의 미디어 인식 모두에 나타나는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미디어는 유능함의 표상이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그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 미디어는 학습이나 소통의 훌륭한 도구로서 학습력이나 교우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였다. 그러나 그 역기능에 대한 인식 역시 두드러졌다. 사이버 폭력이나 중독에 대한 두려움, 사회와 개인의 공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사용자 자격에 대한 인식 등은 본격적인 창작 중심



의 미디어 교육 이전에 사전 프로그램 형식으로 아동과 학부모 모두에게 행해져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 학습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는 TV 같은 구(舊)매체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미디어였으나 구미디어에 비하여 뉴미디어들만이 가진 교육적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속성이 가장 특징인 디지털 미디어는 가족, 친구, 공동체 내에서 화해와 소통의 도구, 학습과 피드백의 도구로서 충분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학습 미디어로서 견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쇄매체(도서)의 중요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전자 미디어의 잦은 사용이 도서에의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고, 아동들 역시 종이책과 전자 미디어의 갈등을 표시하면서 학습에 있어 인쇄매체의 위상이 보다 상위에 있음을 피력하였다. 동시에 중독 예방의 대안으로 거론된 매체가 도서였다는 점도 특이하다[3].

## 2.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수행된 초등 중학년 아동과 학부모의 미디어 심성모형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한다. 이렇게 개발된 미디어 교육 모형은 전문가 2인에 의하여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앞서 제시한 해외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모형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재 미디어 사용 상황에 맞도록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강조한 교육 모형은 흡스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10]. 흡스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모형들이 부가적으로 첨언에 그치고 있는 ‘창작’ 후의 ‘성찰’과 자기 평가 부분,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실천’의 단계를 강조하여 제시하였다는 점과, 그 실천의 결과들을 다음 미디어 교육 활동에 피드백하는 순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요자 요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미디어 사용 태도나 자격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에 대한 보수적이고 보호주의적 견해가 여전히 팽배한 한국의 경우 미디어 교육이 곧바로 사용(access)의 단계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탁월한 사용 능력을 강조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 접근은, 이후 학습자가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자기 통제하고 정신적 방향성과 해석의 관점을 선점하는 데에 부작용,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미디어 사용에 앞서 자신의 미디어 사용 욕구나 해석적 관점, 세계관, 올바른 사용 전략 및 자격 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인 수정과 재수립이 반복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미디어 교육 모형은 ‘세계관(관점) 수립’의 단계가 흡스의 모형에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그림 5]에 이를 제시하였다. 이들 각 단계들의 세부 교육 내용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학자들 중에 각 단계를 강조하였던 해당 학자들의 견해를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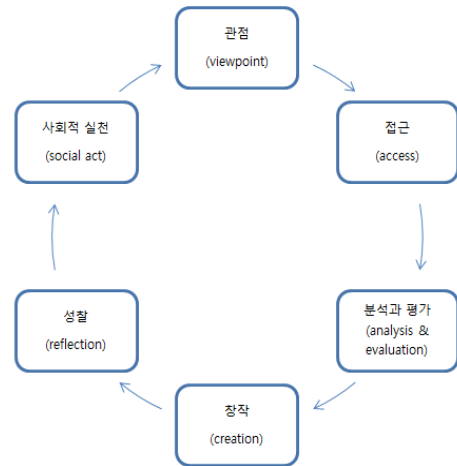


그림 5. 한국형 5단계 미디어 교육 모형

위의 개발된 교육 모형의 특징은, 1차적으로 수립된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이 이후 ‘분석’과 ‘창작’ 단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교육 활동 내내 새

로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정된 세계관은 다시 순환적으로 또 다른 매체 사용(접근)에서부터 도전을 줄 수 있다.

‘관점과 세계관’ 단계는 미디어 사용을 전제로 폭넓고 다양한 세계관을 검토해보고 자기 신조와 전략을 세우고, 미디어 정보를 전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토의하는 장이다. 이 단계는 학부모와 아동들 모두가 우려하면서 제안하였던 중독과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올바른 사용자 자격 교육, 자신의 세계관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행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으며 자기 통제력과 비평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사용(접근)’ 단계의 목표는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들을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이지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시대에 걸맞도록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인쇄 매체인 도서의 미디어로서의 위상과 활용도 미디어 교육의 모형 안에서 함께 언급되어야 함도 제시하였다.

표 8.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의 핵심 내용

단계	핵심 내용
관점과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신념, 철학,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수립.</li> <li>- 자신의 미디어관, 메시지 해석적 관점, 각 매체의 사용 목적 등을 점검.</li> <li>- 올바른 미디어 사용, 사용과 해석 전략 및 사용자자격 인지.</li> </ul>
사용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li> <li>-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li> <li>- 인쇄 매체의 미디어로서의 위상 인식 및 활용.</li> </ul>
분석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시지(의미)를 찾고 감상할 능력을 배양.</li> <li>-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의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li> <li>- 인지적, 감정적, 심미적, 도덕적 영역들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할 능력을 배양.</li> <li>- 자신의 세계관과 관점을 투영하여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li> </ul>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능력.</li> <li>- 자신의 관점/세계관을 투영하여 미디어 메시지를 창작할 능력.</li> </ul>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 세계관 등을 투영하여 자신의 창작품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함.</li> <li>-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을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개선함.</li> </ul>
사회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눔.</li> <li>-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li> <li>- 디지털 미디어 활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li> </ul>

‘분석과 평가’ 단계는 단순히 생산변인이나 정보 가치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고 감상할 능력까지를 포함하였다. 포터가 제시한 네 가지 영역-인지, 감정, 심미, 도덕-의 균형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적 가치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의 작가 세계가 반영된 텍스트로 보고 분석자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하여 해당 텍스트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창작’ 단계는 핵심 단계로서 이전 단계의 정보와 관점들을 투영하여 자기표현을 하는 단계이다. 표절을 신중히 다루며 참된 정보만을 반영하면서 자신만의 창작품을 생산해내면서 미디어에 대하여 더 잘 배우게 된다.

‘성찰’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 세계관 등을 투영해 자신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또한 그동안 견지해왔던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사용 태도나 전략을 새롭게 갱신하여 다음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실천’ 단계는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과 창작과 관련한 지식과 피드백을 나누고 대안적 모색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디지털 미디어들의 도움으로 실제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타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인근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각각 수행된 미디어 심성모형 관련 두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서구에서 유력하게 활용되는 미디어 교육 모형의 강점들과 결합하여 새 시대에 맞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미디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모형들을 검토해 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점들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현재 한국 상황에 적합한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국의 버킹엄(D. Buckingham)의 창작 중심 교육 모형을 살폈다. 그의 교육 모형은 현재 영국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이며 창작(제작) 중심 미디어 교육 모형으로 ‘만들면서 더 잘 배운다’는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로 홉스(R. Hobbs)의 사회적 실천 중심 교육 모형을 살폈는데 이는 버킹엄의 모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창작’ 이후 ‘성찰과 사회적 행동’ 단계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서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다음 미디어 교육에 반영하는 보다 확장적 모형이다.

셋째, ‘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형은 포터(J. Potter)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모형인데 이 모형은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전인 교육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창작품으로 다루면서 인지, 감정, 심미, 도덕의 4가지 분석 기준을 기술(skills)과 지식(knowledge)이라는 두 목표 영역에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분석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교육학적인 구조로 구성한 장점이 있다. 넷째, 밴후저(K. Vanhoozer)의 세계관 중심 분석 모형은 포터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분석과 평가를 중요시하면서도 다른 모형과는 차별되게 ‘세계관’의 선행적 수립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아동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높아[3][11] 홉스가 다른 교육 모형과는 차별적으로 제안한 ‘성찰과 사회적 행동’ 단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본 연구는 전제하였다. 따라서 홉스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을 기본으로 이를 수정하고 확장하였다. 즉, 본 연구의 교육 모형이 기존 미디어 교육 모형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미디어를 보고 수용하기만 하는 구미디어가 대상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이 주요 기능인 뉴미디어를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적합한 홉스의 모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한국 수요자들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 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성을 강화하는 일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초조사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교육 수요자들은 중독, 사이버 폭력, 전자 미디어와 독서와의 갈등 등을 시사하였다. 이로써 미디어 교육에 앞서 자신

의 미디어 사용관과 텍스트 해석적 관점, 자기 정체성과 세계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이후의 미디어 사용과 태도, 분석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홉스의 모형에서 ‘세계관과 관점’ 목표 영역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은 교육 활동 내내, 즉 분석, 평가, 창작, 성찰, 사회적 실천 단계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교육 경험을 통해 자체 수정되어 다음 미디어 교육에 순환적으로 반영됨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동시에 이 개발된 모형은 인쇄매체로서의 종이책의 위상과 미디어로서의 활용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고 분석과 평가 부분은 포터 모형의 일부를 활용, 보다 목표 영역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다차원적이고도 전인 교육적 활동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5단계 미디어 교육 모형은 생산 능력을 교육 목표로 하는 미디어 환경론적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것이다. 메이로워즈의 미디어를 보는 세 가지 관점-도구, 언어, 환경-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독 등의 역기능을 염려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을 반영하여 본격적인 미디어 사용(access)에 앞서 ‘관점과 세계관’ 확립을 교육의 시작점으로 삼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이다.

본 연구는 한 프로젝트 수행의 연장선 안에서 두 선행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문헌 연구와 결합한 연구이다. 두 선행 연구는 미디어 심성모형을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질적 연구였다. 심성모형은 양적 연구가 놓치기 쉬운 인간 사고의 비규정적 이해를 밝히기 위해 그 성격상 질적 연구가 적당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은 후속 연구의 실증적 방법에 의해 그 일반화된 적용을 위하여 몇 차례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 효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해 보도록 제안한다.

참고문헌

[1] J. Meyrowitz, "Understandings of Media,"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Vol.56, No.1, pp.44-52, 1999.

[2] J. Meyrowitz, "Multiple Media Literacie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8, No.1, pp.96-108, 1998.

[3] 이란, 현은자,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관한 아동의 심성모형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pp.601-613, 2016.

[4] 김양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5] R. Hobbs,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2010.

[6] 김양은, "미디어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7, 2007.

[7] D. Buckingham, *미디어 교육*, Seoul: jNBook, 2004.

[8] R. Hobbs,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2010.

[9] W. J. Potter, *Media literacy* (7th edition), CA: Sage, 2013.

[10] 이란, 현은자, "디지털 시대의 아동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Vol.35, No.4, pp.17-40, 2014.

[11] 이란, 홍지민,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2, pp.818-834, 2014.

[12] D. Buckingham, *Media Education*, Polity, 2003.

[13] 김양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미디어 교육 실행 모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4] R. Hobbs, "The state of media literacy: A response to Potte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5, No.3, pp.419-430, 2011.

[15] W. J. Potter, "The state of media literac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4, No.4, pp.675-696, 2010.

[16] K. Vanhoozer, *Everyday Theology*, 윤석인 역, 문화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7] 정재철, 손인수, 권오일, *교육원리*, 서울: 교육, 1991.

[18] 안정임, 전경란, *미디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나래, 1999.

[19] 김양은, "미디어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8, pp.77-110, 2005.

[20] K.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Michigan: Zondervan, 1998.

저자소개

이 란(Ran Lee)

정희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Msc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2014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아동문학콘텐츠, 아동미디어콘텐츠, 미디어리터러시

현 은 자(Eunja Hyun)

정희원



- 1982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문학사)
- 1984년 : Eastern Michigan Univ.(문학석사)
- 1988년 : Univ. of Michigan(교육학박사)

• 1989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문학교육, 아동미디어리터러시, 그림책, HRI(Human-Robot Interaction)